

제39차 이사회 개최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제3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와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원안 통과 시켰다.



이영호 의원 내방

지난 2월 2일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 (전남 강진·완도)이 한국어항협회를 내방, 배평암 회장과 수산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신입사원 발령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2월 1일자로 신입사원 이승호씨와 최운수 씨를 환경관리부, 부설 어항어촌개발연구소에 각각 근무 발령했다.



인공어초 주변 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 실시

한 한국어항협회는 국립수산 과학원 수산자원관리 조성센터에서 주관하는 경상남도 인공어초 주변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의 용역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업환경개선 및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지난 2월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120일 동안 남해 미조 앞바다 등 경남일대 해역에 시설된 어초



면적 중 총 5.5ha에서 수중 폐기물 13.2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남해 상주 조도 연안 등 인공어초 사업이 실시된 13개소에 대한 인공어초 탐색, 잠수사와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폐기물 인양·수거·해상운반·육상하역,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2월 14일 설계업체 및 사업 협력업체와 관계자 업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